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5월 1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최연우 과장(2110-5131), 박헌진 사무관(2110-5132)

"알뜰한 소비자, 신품성능의 재제조품 반값이하 O.K!"

- 산업부, 대형마트와 연계 알뜰 재제조품 활성화 적극 나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를 중심으로 한국프린터&토너카트리지 재제조협회(회장 구용근)와 롯데마트(사장 노병용)가 협력하여 16일(목)부터 29일(수)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롯데마트 잠실점과 구로점에서 「재제조토너카트리지 판매행사」를 실시할 계획임.

* (再제조의 개념) '사용후 제품'을 분해-세척-검사-보수·조정-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

○ 행사에는 재제조협회를 통해 엄선한 5개의 국내 유수 재제조카트리지 중소기업이 참여하며,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재제조카트리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함.

* 이번 판촉행사로 카트리지 2세트를 구매하면 프린터기(컬러, 흑백) 1대 무료제공, 2+1행사, 사은품 증정, '재제조카트리지와 신품간의 비교 시연회'도 열릴 예정

□ 재제조시장은 신품 성능에 반값이하 알뜰소비 재제조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애프터마켓으로,

○ 재제조산업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, 물가안정, 고용창출, 에너지·자원절약에 크게 기여하는 저성장·고물가시대에 적합한 효자산업임.

* 재제조품은 신제품과 성능이 유사하면서도, 가격은 30~60% 수준인 중소기업 적합 서민형 품목, 제조업대비 약 3배의 고용창출(매출10억원당 재제조 **8**명 vs. 제조업 **3**명, '10년)

○ 그러나,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저조하고, 기업은 제품에 대한 판로확보가 여의치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활성화가 더딘 상황

* (시장규모, '10년) 韓 7,500억원, 美 63조원, (대상품목) 韓 자동차부품, 토너카트리지 중심 총 25개, 美 자동차부품, 군수품, 의료용품, 가구 등 총 121개 제품군

○ 특히, 재제조 중소기업은 대형마트 판로 확보를 희망하였으나, 시장 성숙이 미흡하여 대형마트가 선뜻 판매에 나서기 곤란하였음.

○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제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형마트와의 조율을 거쳐 우수 재제조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길을 열었음.

□ 이번 행사는 재제조기업과 대형마트가 협업한 첫 번째 사례로서,

○ 소비자가 재제조제품의 품질우수성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재제조 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.

○ 재제조토너카트리지협회 구용근 회장은 "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와 대형마트가 손잡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"고 소감을 밝혔음.

○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은 "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알뜰 재제조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제조제품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 동반성장과 친환경산업 활성화에 일조하겠다"고 언급하였음.

□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가 토너카트리지 외에 다양한 재제조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재제조 기업과 대형마트,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판로처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.

○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은 "이번 중소 재제조기업과 대형마트간 동반성장 모델이 보다 확산되어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의 재제조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"고 밝혔음.

※ 16일 14:00경, 1차관이 참석하는 별도 관련사진 송부 예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박헌진 사무관(☎ 02-2110-51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